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단지고 단져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에는 경남중고교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안 강 태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3 · FAX: 245-7550
 인쇄처: (주)명방인쇄
 Tel: (051)636-9477 · FAX: 636-9478

신선한 만남 '홈커밍' 활짝

제39회 졸업 20년 만에 첫 축제 · 제29회 30주년 맞이 잔치

'아름다운 만남·신선한 감동'의 홈커밍데이축제가 활짝 피고 있다. 제39회동기회는 졸업 20년 만에, 제29회는 두 번째로 행사를 치렀다. 또 제19회동기회는 오는 5월 21일 졸업40주년, 제9회는 50주년 행사(일정 추후 발표)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제39회 동문·가족들이 20년 만에 맞는 홈커밍축제 기념식에서 교가를 제창하고 있다.

제39회동기회 20년 만의 재회에 감동 라이브 공연 등 다채

"20년 만의 재회... 역시 39회는 다르다!" 지난 5월 7일 오후 6시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 제39회동기회는 그리움과 기대의 세월을 아우르는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축제의 막을 열었다.



홈커밍축제 둘째날 모교를 방문한 제29회 동문·가족들이 원형교사인 덕영관 2~3층 난간에 서서 '모교·동창회 만세!'를 외치고 있다. 1층 앞에서 3명이 손에 손을 잡고 리드하고 있다.

김형보·이영수 부산·재경회장이 공동주재한 제1부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은사 소개, 동기회기와 동창회 사상 첫 부산·서울 기별야구대회 2관왕 쟁취의 우승기 입장, 동영상으로 구성한 10분간의 추억여행, 동기회장의 회고사·본부 회장 격려사·은사대표 축사, 유공자 표창과 본부동창회 장학금 기탁, 모교 발전기금(주목 식수)과 야구부 지원금 전달, 축배와 교가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사회: 문기호 추진위원장).

김형보 동기회장은 회고사를 통해 "용마의 씨앗을 타고 태어난 66년생 우리 말띠들은 오늘이 감격의 재회를 위해 20년간 기다림 속에 살아왔다"며 "야구명문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

해 헌신의 기틀을 다시 쌓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주인공인 국내의 동문·가족 400명과 초빙된 이희문 조용철 황규형 등 은사 20명, 안강태 본부 회장(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김병수 사무국장 겸 총무부장(22회)·황유명 부총무(29회), 제38·40~48회 회장단, 같은 해 졸업한 부산고 회장 등 430여 명이 참석했다.

안강태 본부 회장은 앞서 유공자 표창에서 우형철 정성운 동문에게 공로패를, 서성복 김재정 동문에게 순금 배지를 수여했다. 경남고 교장 감사패는 박인석 서동규 김병기 안영준 이영수 동문이, 동기회장 공로패는 이철원 한병섭 남동국 안철우 조재호 장

유식 김춘배 김성완 제갈태환 신동관 허중기 성충일 동문이 각각 받았다.

제2부 여흥한마당은 라이브 공연(김성수)·플룻 연주(정의찬 누님)·가족들의 노래경연·동문 장기자랑·남녀 혼성 댄싱 등으로 열정의 파노라마를 연출했다.

피날레는 무대와 객석이 어둠속에서 "아이 러브 경남고!"라고 씩여진 야광기구가 뜨면서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행운을 비는 합창을 했고, 오른쪽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후라,경고!"를 삼창하는 퍼포먼스 등으로 장식했다.

한편 동문들은 전야제 개막에 앞서 오후 2시 가족들을 안내해 경남고를 방문, 추억 잇든 교정

일 글 송규정(16회)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송규정 본부 부회장(16회·윈스틸 대표이사·사진)은 지난 4월25일 부산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송 동문은 앞서 같은 달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117년 전통의 부산상의 처음으로 '의원만장일치 추대'로 회장에 선임됐다.

특히 동문으로서의 동창회 사상 첫 부산상의 사령탑이 돼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선양했고 용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송 동문은 이날 취임사에서 △부산경제 활성화와 상공인권의 신장 △의원 상호 간·의원부-사무국 간 화합과 결속 촉진을 통한 상의 위상 제고 △사무국의 능률 극대화 및 반관리비 절감으로 내실화 추구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각적 지원 △해의 거주 한상(韓商) 대표 초청을 통한 국내 투자 유치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본부 부회장직을 14년 동안 맡아 오고 있는 송 동문은 동창회 조직 활성화와 용마가족 화합과 결속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으며, 동기회 회장 재임 시에는 동기회의 기반 확충을 위해 몰심양면으로 성원했다.

서울대 사학과와 이 대학 경영대학원(석사과정)을 졸업한 송 동문은 연합철강(주)을 거쳐 동명철강상사를 창립했고, '제2의 창업'으로 자부하는 (주)윈스틸을 출범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송 동문은 미국 하와이대 이스트-웨스트 센터에서 경영연수를 했고 부산상의 상임의원과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부산시체조협회 회장직 등을 맡고 있다.

<관련기사 3면에>

곳곳을 살살이 둘러본 후 기념촬영을 했고 행사장에 도착해 해운대 바다 풍광에 심취했다.

일행은 뒷날 8일 오전 세계적 관광명소로 떠오른 광안대교 등을 관광한 후 오후 12시30분 자갈치시장 회센터에서 석별의 정을 달래는 생선회 파티를 벌였다가 헤어졌다.

제29회동기회 국내에서 418명 참석 "역대 행사 중 최대" 과시

"만나면 좋은 친구...우리는 29동기!" 제29회동기회는 지난 4월30일 오후 6시30분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축제 팡파르를 울렸다.

김대욱·이승우 부산·서울 동기회장이 공동주재한 축제 제1부 기념식은 이날의 주인공인 국내의 동문·가족 418명이 기립하여 초빙된 은사 스포아홉 분과 안강태 본부 회장(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을 비롯한 임원 다수 등 입장을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환영하면서 돌아오르기 시작했다.

기다림 끝의 반가움이 감동의 물결을 이루며 450여 명의 가슴마다 밀려 들어왔다.

(사회:김영화 동문·재학시절 응원단장).

<2면에 넘김>

本格熟成品

味の明太子

맛의 명태자

http://www.dkfnb.co.kr

경남고 21회 강창수, 경남고 54회 김치범 울림

- 전통적 젓갈 문화는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 웰빙시대에 맞는 새로운 컨셉으로 대경이 앞장서 나갑니다.
- 우리는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맛으로 승부합니다.
- 선물하시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생산품목

- 저염숙성품: 味の明太子, 明太子볶음, 양념홍합젓갈
- 수산물가공품: 味の福 (후라이, 가라아게, 이찌야보시, 필릿, 탕·지리)

입점업체

삼성분당프라자백화점, 신세계 명동점·강남점, 스타슈퍼점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지하), 하이퍼마켓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 삼성인터넷몰, 대경인터넷몰, 레이크사이드CC, 곤지암CC, 동래CC, 부산CC, 울산CC

대경에프엔비(주) 부산 Tel:051-255-7211 Fax:051-255-7214 서울 Tel:02-593-6163,6017 Fax:02-593-6018

시평

어설피게 시작한 동기회 총무가 벌써 5년째, 급기야 금년 3월부터는 본부동창회 총무협의회(경총회) 회장이라는 위치에 있고보니 솔직히 동기회, 나아가서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등학교생일 때 들쭉 앓게 되어 있는 책상의 한 가운데에 글을 긋고 짝의 물건이 넘어오면 화를 내거나 심한 경우에 넘어온 물건을 연필 깎는 칼로 잘랐던 기억들을 갖고 있다. 또 중·고등학교의 경우 시험 칠 때 책가방을 중간에 놓아, 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답안지를 보호해주는 담으로 사용한 추억을 갖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발역에서 넉넉하게 자리가 남아도는 경우,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아주 멀찌감치 떨어져 앉는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그 중간에 자리를 잡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비슷한 광경은 영화관, 버스 안에서도 관찰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유가 있는 공중화장실에서는 적어도 한두 칸씩 서로 떨어져 볼 일을 본다.

즉,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개인적 공간'이라는 자기만의 안식처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남이 자기의 공간에 들어와도 불편을 느끼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이 자기를 피하는 것도 불쾌감을 주기는 마찬가지다.

대인관계에서의 공간적 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척도이다. 사람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개인적인 거리는 대략 가족, 연인들 간의 '친밀관계'가 40~50cm, 일반적인 친구들 간의 '개인적 거리'가 50~120cm, 친하지 않지만

권오균

제21회·본부 총무협의회회장 (주)한국에어로테크 부산지사장



서로 안면이 있는 경우의 '사회적 거리'는 2~4m, 적당히 편전을 부리고 무시할 수 있는, 공식석상에서 연설이나 강의를 들을 때 강사와 청중 간의 '공적 거리'는 4m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같은 시간, 공간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또 동반자이면서도 동시에 경쟁자였던 우리들 동기나 선·후배 동문들은 과연 어떤 관계이며, 서로가 편하게 느끼는 거리는 얼마쯤 되는 것일까? 또 되어야 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자.

“담을 헐고 거리를 좁혀 다가서야”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과 습관적으로 비교한다. 마치 경기에 출전하는 마라톤 선수가 다른 선수들을 의식하면서 달리듯이, 남이 나보다 못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나보다 잘하면 내가 지는 것이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경기 기록을 갱신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무도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는 때만이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점수 자체보다 등수에 더 신경을 쓰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같다. 예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은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끊임없이 비교에 의해서만 행복이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점점 더 불행한 경험을 할 뿐이다.

우리 동기나 동문들이 학생시절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던, 서로 비교하고 경쟁했던 관계를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하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순진한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앉는다. 상대를 좋아하고 있다는 속셈을 노출하고 싶지 않거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위장하기 위해서이다. 비교적 매사에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품이 많은 우리 동기나 동문들이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한다.

어찌 보면 누군가와 친해진다는 것은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개인적 공간에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기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정이 붙겠는가? 세일즈맨들도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가까이서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안다.

남이 자기의 개인적 공간에 들어오는 것은 불편함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 있어도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점차 경계를 늦춘다. 친밀감이나 호감의 정도에 따라 거리감을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친해지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다가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상대와의 거리를 좁힌다고 무작정 친해지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상대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상대가 서로 남이 아닌, 누가 뭐래도 자랑할 만한 우리의 동기, 동문들이 아닌가? 왜 담을 헐고 거리를 좁혀 다가서지 않는가?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이며, '연인'인 동기와 동문들에게 다가가서 서로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김병수(22회) 총무부장 사무국장 겸직 임명

황유명(29회) 부총무·배진영 여직원 유임

안강대 본부 회장(11회·본부 용마장학회 이사장·대전조선 대표이사)은 최근 오래 전부터 사의를 표명해 온 김형석 사무국장 후임에 김병수 총무부장을 사무국장 겸 총무부장으로 임명했다.

안 회장은 이와 함께 황유명(29회·부산대 경영대학원 졸업·사진 위) 부총무와 배진영(신라대 행정학과 졸업) 여직원을 각각 유임시켰다.

김 전 사무국장은 평소 "본부 사무국 요원은 항시 자기재충전을 통해 동창사회의 다양성에 부응하고, 부총무를 조속히 채용하



여 후진 양성과 함께 능률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부총무 채용은 예산충당 문제로 실현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전 사무국장은 "국장의 활동비를 인건비에 충당하고, 한시적으로 총무부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할 것"을 여러차례 건의, 숙고 끝에 이 안이 수렴됐다.

가 터졌다.

이어 열린 버라이어티쇼는 PSB 전속무용단의 발랄한 댄스와 통기타 초청가수의 추억의 노래, 동문·가족들의 춤과 노래, 행운상 추첨과 노래자랑 시상 등으로 연출됐다.

공연은 김영화 동문의 선창으로 '후라, 경고!' 3장과 응원가(1)를 제창한 후 밤 11시30분 막을 내렸다.

뒷날(5월1일) 오전 동문·가족들은 세계적 관광명소가 된 광안대교 등을 관광한 후에 모교를 방문했다.

30년 만에 경남고에 도착한 동문·가족들은 원형교사 등 교정 곳곳을 둘러보며 추억여행을 했고, 포즈도 취했다.

오후 12시30분, 일행은 자갈치 시장 내 부창빌딩 2층의 6개 훗집을 통째로 빌려 오찬을 겸한 석별의 정을 달렸다. 싱싱한 생선회와 낚슬은 장장 3시간 동안 '노래 실은 꽃마차'를 타게 했다.



제14회동기회 서울·부산 3학년8반 동문들이 거제고(교장 조규태 동문)를 방문, 좌중시계를 기증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14회재경동기회 반창회 열풍

삼팔회는 거제에서 경부합동으로 잔치벌어

타교 졸업생 등 '삼구회' 결성

제14회재경동기회(회장 김영치)에서는 최근 고3 시절 반창회 붐이 일어나 동기회 활성화와 동문 유대강화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삼팔회(3-8)는 지난 3월12~13일 경남 거제에서 경부합동반창회를 열었다. 반창회 중 유일하게 경부합동으로 펼쳐지는 이 행사는 올해로 지난 1991년 이래

네 번째이다.

첫째날인 12일 서울에서는 권근술 회장 등 6명이 고속버스편으로, 부산에서는 이승우 회장 등 8명이 페리호편으로 각각 거제 장승포에서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일행은 곧바로 조규태 동문이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거제고를 방문, 좌중시계를 기증했으며 저녁에는 조 동문이 답례로 배운

싱싱한 생선회파티를 즐겼다. 앞서 일행은 이곳에서 치과의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손광웅 동문(3-5)의 멋진 자택을 탐으로 구경했다.

뒷날인 13일에는 옥포대침기념공원~점식식사(부산 이승우 회장 스폰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등을 관광했다.

△삼일회(3-1)는 같은 달 16일 오후 6시 서울 K식당에서 오종철 회장 등 13명이 모여 평소 '뒤편지 1등만 하는 사람들이 모인 반'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저력(?)을 과시했다.

△삼삼회(3-3)는 지난 연말 서울 논현동 Y일식집에서 신준호 고문과 김인환 회장 등 14명이 참석, 시원소주를 나누며 우정을 확인했다.

△삼구회(3-9)는 타교에서 졸업했거나 휴학했던 동문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최근 삼구회는 창립총회를 개최, 초대회장에 김영우 동문을 선임하고 회원 발골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제15회 신입회장 김경일 선임



제15회동기회는 지난 3월25일 부산 동구 범일동 크라운호텔 12층 난초홀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어 신입회장에 김경일 동문(정공산업 대표이사·사진)을 선출했다.

박찬호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일랑 총무의 사회로 진행,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임원

개선에서 회장 선출 후 회관운영 위원장에 정창환·감사에 최병우 이정부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김경일 신입회장은 김창구 최원수 동문을 총무로 임명했고 조일랑 회관운영실장을 연임시켰다.

조직활성화 등 논의 제16회 올해 첫 이사회

제16회 동기회 올해 첫 이사회가 지난 4월 7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중앙북국호텔에서 이맹립 회장을 비롯한 23명이 참

석한 가운데 열린 조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앞서 3월 24일 열린 '05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부회장 감사 이사 선임을 완료했다.

권복술 전정축 양화운 하주열 동문은 이 회장의 취임을 축하해 화분을 보내왔다.

- △부회장=김미륵 손경식 손송방 이길홍 정수병
- △감사=이겸일
- △이사=강원경 등 26명
- △사무국장=강종국
- △간사=최정일

<1면 '홈커밍축제'에서 받음>

이승우 재경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기념식은 국민의례 묵념, 김대욱 동기회장 인사와 안강대 본부 회장 격려사, 길창순 은사의 스승대표 축사 등이 있었다.

이어 유공자 표창과 은사님 선물 증정, 경남중·고 발전기금과 야구부 후원금(경중 300만원·경고 400만원) 전달, 미국·루마니아 등 해외동문 건배 제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안강대 본부 회장은 민중식 이승우 동문에게 공로패를, 김영훈 허남건 동문에게 순금기념배지를 각각 수여했다. 경남고 교장 감사패는 강성훈 강희철 동문이 받았다.

만찬에 이어 막을 연 제2부 축하공연은 앞서 만찬 도중 이충원 총무가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 모인 418명은 역대 홈커밍 데이축제 중 최고를 기록했다"고 알리자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

동창회 발전기금 1천만원 쾌척

신준호 (14회) 시원소주 회장, 본부에 기탁



문(14회·재경동창회 고문·사진)은 최근 동창회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쾌척, 본부 사

(주)시원소주 회장과 (주)롯데햄·롯데우유 대표이사 부회장인 신준호 동문(14회·재경동창회 고문·사진)은 최근 동창회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쾌척, 본부 사

구단주·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지냈고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신 동문은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동창회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용마가족들의 유대 강화에 배전의 노력을 쏟아 화합과 결속의 공감대를 확산해 이 저력을 동창회 발전의 활력소로 작용하게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운주사 와불 숨결 새기고 무등산 관광등반 제16회 스물두 번째 수학여행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제16회동기회 '05수학여행을 겸한 산악회 관광산행이 지난 4월 16~17일 전남 화순 운주사~광주 무등산~전남 담양호·금정산성·죽재박물관~경남함양 벽송사와 서암 코스에서 펼쳐졌다. 올해 수학여행은 지난 1984년 첫발을 내디딘 이래 스물두 번째 행사이다.

손송방 산악회장이 총괄하고 서태복 산행대장이 등반을 리드한 이번 행사는 부산에서 이맹립 동기회장을 비롯해 22명(부인 9명 포함), 대구에서 채경일 부부 등 4명, 진주에서 강진중 부부, 함양에서 하주열 부부 등 모두 39명이 참가했다.

16일 오전 8시 부산을 출발한 수학여행단은 오후 5시 전남 화순의 운주사에 도착, 천불 천탑 와불을 관광하고 광주로 들어와 한정식으로 유명한 미가에서 전야제를 치렀다. 광주에서의 첫날밤은 불야성의 극치였다.

17일 오전 6시 30분 다리와 심장이 튼실하다고 자부하는 A팀은 무등산으로 올라갔고 안팎이 부실한 B팀은 중심사를 관광하는 데 만족했다.

보리밥의 명가 무향촌에서 아침밥을 먹은(09:30) 일행은 전남 담양으로 이동해 담양호~금정산성~죽재박물관을 탐방하고 전북 순창을 거쳐(순두부가든에서 중식) 경남 함양에 닿아 벽송사와 서암 등에서 불교 문화의 숨결을 아로새겼다.



제16회동기회 동문·가족들이 전남화순 운주사-광주 무등산-전남 담양-경남 함양 등지로 수학여행을 하다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함양 안의의 할매집 갈비탕으로 저녁식사를 한 일행은 오후 8시 부산에서 아쉬움을 달래며 작별했다.

**일육산악회와 합동산악회
신임회장 김미륵 선임**

한편 일육산악회 정기총회는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회장 김

미륵·부회장 정무광·감사 서고명·산행대장 서태복·간사장 최정일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05수학여행 특찬금과 성품을 쾌척한 동문·가족은 다음과 같다.

△동기회=50만원 △이맹립(동기회장)=50만원 △손송방(직전 산악회장) 김미륵(신임 산악회장)=각 30만원씩

△강종국 김길정 김인국 김찬문 박영수 손경식 이영일 정

우광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호길=각 10만원씩

△강진중=방울토마토·금굴 각 1박스

△엄종원=캔맥주 1박스
△김미륵=양주 1병

△이맹립 하주열=각각 고로쇠물 1말씩 동기회 기증

△부인들=떡 과일 안주 등.

"흑돼지 바비큐는 천하스품 별미..."

제34회 가족동반 야유회... 70여명 벚꽃 속 신바람



제34회동문·가족들이 경남양산 근교 동명농원에서 야유회를 즐기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지난 4월 10일 제34회동기회 가족 동반 야유회가 경남 양산시 덕계 근교 동명농원(이성엽 남부회장 운영)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앞으로 재경회를 비롯해 전국 지역회가 함께 모여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수형 회장과 옥재명 총무가 함께 기획하고 이끈 이날 행사는 동문·가족 70여 명이 참가, 화합과 결속을 과시하는 즐거운 하루가 됐다.

날씨가 궂은 탓으로 갖가지 야

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으나 '도전! 골든벨' 등 몇 가지 실내 게임을 흥겹게 펼쳐 기분들을 피게 했다.

활짝 핀 벚꽃 속에서 향나무장작으로 구워낸 흑돼지 바비큐는 어디에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별미였다.

양철용 고문과 태국의 노승환 동문(삼성전기 태국지사장)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이 갖가지 기념품을 협찬했다.

안강태 본부회장 등 다수 동문 송규정 부산상의회장 취임식에

안강태 본부 회장(11회·대선 조선 대표이사)과 오강욱 자문위원(10회·남선곡산 대표이사)을 비롯한 다수 동문들은 지난 4월 25일 송규정 동문(16회·윈스틸 대표이사)의 부산상공회의소 취임식에 참석, 축하했다.

이날 본부에서는 안 회장과 오 자문위원·김형석 홍보이사(16회)·김병수 사무국장 겸 총무부장(22회), 제16회에서는 조길우 부산시의회 의장(축사)과 이맹립 동기회장, 양성민 옥윤석 강종국 이우재 지수신 엄주익(이상 부산) 민신웅(재경회장) 송태남 전정측 동문(이상 재경)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제16회 이맹립 회장과 양

성민 고문은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부산·서울 동문들을 위해 각각 만찬과 오찬을 베풀었다.

송규정 상의회장 축하연 제16회, '행운의 열쇠' 증정

한편 제16회동기회는 동기생인 송규정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위한 축하연을 지난 5월 7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구포집(22회 장영근 동문 운영)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이맹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송규정 동문에게 모든 동기생의 뜻을 담은 '행운의 열쇠'를 증정했다. 송 동문은 답사를 통해 "모교와 동창회, 용마가족의 명예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5회 친목회 우정총만

화친회 신임회장 김종태

제15회 이화회(회장 박재준)와 화친회(회장 임병철)는 지난 4월 12일 오후 7시 각각 대서양참치집과 소도에서 정례회를 열었다.

이날 11명이 참석한 이화회는 유락여중

교감직을 끝으로 정년퇴임(40년간 봉직)한 박 회장을 위한 축하연을 곁했다.

제152차 정례회를 맞아 정기총회를 연 화친회(14명 참석)는 지난 2월 모교 경남고에서 정년퇴임(37년간 봉직)한 김종태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김 신임회장은 서정욱 동문을 새 총무로 발탁했다.

"가위처럼 정답게 살아가자"

五言詩 '가위노래' 새 감상

이근태 (10회)

20대 초반의 여인-복스럽게 생긴 얼굴, 밧그레한 볼, 한쪽 무릎만 세우고 품위있게 앉은 자태, 내리간 눈썹이 더욱 육감적이다.

한겨울 온돌방 따뜻한 아랫목에서 지아비의 옷을 짓기 위해 바느질을 하는 여인이 가위를 손에 쥐었다.

한가로운 낮 닭의 울음소리는 졸음을 물고올 법하고, 사모하는 지아비는 먼 곳에 갔으며, 돌아올 날은 아직도 얼음이상 남았는데... 그림고 애뜻함이 극에 달하여 가위를 열었다 단았다 해본다.

손잡이 있는 부분이 열리면 천을 자르는 날 부분도 열리고 손잡이를 맞게 하면 두 날이 단친다.

날 부분의 열고 닫음을 깊고 얇게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나' 가위가 움직이기 싫으면 '너' 손가락은 어떡할 거냐!

이런 상황을 사모하는 낭군과의 사랑놀이와 비교하여 그절정의 감정을 오언시(五言詩)로 표현하였다.

有情雙腰合(유정쌍요합)
정이 있으면 두 허리(가위의 손잡이)가 합하고,
多情兩脚開(다정양각개)
정이 많으면 두 다리(가위의 두 날)를 연다.
深淺任君在(심천임군재)

깊고 얇게 하는 것은 낭군에게 말기나,

動腰吾自在(동요오자재)
허리를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대로되다.

이 오언시(五言詩)는, 우리의 역사에 등장하는 절세가인이 작자로 알려진 전도가(剪刀歌·가위노래)라고 한다. 필자의 청춘선배가 내 나이 20대 초에 가르쳐주었다.

용마가족 여러분, 남녀는 말할 나위도 없고, 단단하고 의중계 정답게, 황홀하게 뒤엉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김수민(26회)·안종택(27회) 김시장 승진
각 대구고검 차장검사·춘천지검장 발탁



최근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이던 김수민(26회·사진 위)·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안종택 동문(27회·사진 아래)이 나란히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거쳐 춘천지검장으로 발탁됐다. 김수민 동문(사시 22회·사법

문규상(27회) 수원지검 형사2부장 이춘성(28회) 수원지검 2차장검사 옥준원(28회) 부산고검 검사 조한욱(29회) 서울고검 검사 노동표(34회) 서울고검 검사 김형현(34회)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연수원 12기)은 부산지검 특수부장·1차장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등을, 안종택 동문(사시 20회·사법연수원 10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부산지검

1차장검사·수원지검 형사2부장 검사 등을 각각 역임했다. 이와 함께 문규상 동문(27회)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로서 수원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춘성 동문(28회)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에서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옥준원 동문(28회)은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로서 부산고검 검사로 각각 영진했다. 또 조한욱 동문(29회)은 '부패방지위원회 파견근무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노동표 동문(34회)은 인천지검 부장검사로서 서울고검 검사로, 김형현 동문(34회)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로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타 기관 파견)로 각각 발탁됐다.

최혁(13회) 민주평통 진해시 위원장



최혁 동문(13회 사진)은 최근 민주평통자문회의 진해시위원장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류종일(14회) 부산의료원 원장 취임



류종일 동문(14회·사진)은 지난 3월28일 부산의료원 원장에 취임했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류 동문은 부산대병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대 의대 교수(정형외과)와 대한정형외

과학회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유재진(22회)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유재진 본부 부회장(22회·부산스타자동차 대표이사·사진)은 지난 4월 25일 취임한 송규정 회장(16회·본부 부회장) 체제의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에 선임됐다.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 동문은 영남제분 대표이사·부산지구 청년회의소 회장·주부산 스웨덴 영사관 명예영사·부산상공회의소 의원(13·14·18대)·부산 사이클연맹 회장 등을 역임했고, 미창석유(주) 회장·뉴유창물산(주) 대표이사·부산

골프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평소 동창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하고 있는 유 동문은 기별야구대회와 골프대회 등 본부의 각종 행사 때마다 특찬금과 성품을 쾌척하고 있다.

박기욱(23회) 음식업중앙회 부산시회장



박기욱 동문(23회·부산시의원·사진)은 최근 음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장에 선임됐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박 동문은 부산시의회 2선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본부동창회 부회장을 맡아 동창회 조직 활성화와 용마가족 유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다.

작게 모여 집해부 독재위 제27회재경회 '05정기총회

제27회재경동기회는 지난 3월 25일 오후 7시 서울 장충동 평양면옥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어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민기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금요일인데다 장소가 새로 선택되는 바람에 여느 때보다 적은

제6회동기회 이길상 회장 취임



제6회동기회는 지난 3월30일 오후 6시30분 부산 사상구 폐법동 파라곤호텔(배종권 동문 전무이사) 2층 뷔페홀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개최, 이길상 회장(경야회 고문·사진)을 취임시켰다.

40여 명이 참석한 총회는 감사보고(허광열)에 이어 결산보고를 승인했다(사회 최병수 총무). 이 회장은 부회장 감사 총무를 모두 재선임했다.

제9회 신입회장 한동대 선임

제9회동기회는 지난 4월21일 오후 6시 부산진구 부전동 대림빌딩 17층 뷔페월드에서 '05 정기총회를 개최, 한동대 동문(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장)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본부 부회장을 역임한 한 신입회장은 현재 본부 용마산악회 고문이며 이날 총회에 즈음해 동기회장을 두 번째 맡게 됐다. 박종근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 결산·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개선에서 회장을 뽑은후 부회장에 김수안

김중호 노도현 박상현 신도수 동문을, 감사에 박종근 직전회장을, 총무에 최성욱 동문을 선임했다.

제14회 신입회장 김용호 선임



제14회동기회는 지난 4월12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무역회관 뷔페홀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어 김용호 동문(용호선박 전무이사·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영대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개선을 통해 새 회장을 뽑고 이어 김철연 조영봉 감사를 취임시켰다.

재경14KD 정기총회 이현영 첫 수석부회장에

한편 재경14회는 같은 달 1일 오후 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연회실에서 '05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김영치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 결산보고를 승인했고, 동호인 모임 지원금을 20% 인상키로 했으며, 수석부회장을 신설해 이현영 동문을 선임했다.



지난 3월25일 저녁 서울 장충동 평양면옥에서 열린 제27회 재경회 정기총회에서 동문들이 '아름다운 만남'을 예찬하고 있다.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스냅은 이렇다. 개회 직전만 해도 동문들이 떠엄떠엄 나 타나는 바람에 집행부가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다. 김민기 나찬희 동문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장세영 김훈탁 동문(전 총무)이 입장해 체면을 세워주었다.

바로 앞에 사무실을 둔 김수인 동문은 얼굴을 내밀자 말자 직원 환영회식 때문에 "먼저 간다"며 사라지는 이변(?)을 연출했다. 좀 있으니 동문들이 삼삼오오로 들어선다. 공민배 김경중 동문, 멀리 부천에서 정재호 동문 등이 웃는 얼굴로 나타나 집행부의 안색이 되살아났다.

경팔회, 5월26일 직지사서 경부합동야유회

제8회동기회는 오는 5월 26일 경북 김천시 근교 직지사서 경부합동야유회를 부부 동반으로 연다. 문 국 회장이 인솔하는 부산팀과 이규환 회장이 이끄는 서울팀은 이날 오전 11시 직사에서 서로 만날 예정이다.

경팔산우회 '노병건재' 과시

재경 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4월에 북한산(2일-10명)과 도봉산(9일-10명), 수락산(16일-12명), 관악산(23일-18명), 북한산(30일-12명)을 차례로 올라 '노병건재'를 과시했다. 도봉산 경우 하산길에서는 봄비가 촉촉히 내려 감미로움을 느꼈다. 관악산에서는 입구의 벚꽃이, 산 중턱에는 개나리 진달래가 너무 아름다웠다. 노재복 동문이 삼미옥에서 칠순기념 점심을 주관, 양주(조니워카·블랙)와 함께 보신을 했다. 이 자리에는 수술 후 건강을 되찾고 있는 김태용 동문도 참석, 격려를 받았다. 30일 북한산에 오를 땐 '100년 만의 4월더위(29.8°C)'로 맘을 뽐낼 못했다.

골프 5월우승 윤태영·이정자

골프모임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지난 5월4일 안성CC에서 제138차 월례회를 펼쳤다. 16명이 라운딩을 펼친 이날 남자부에서는 우승 윤태영(89타·+4)·준우승 김호석·니어

리스트상 김영길·행운상 이유환 동문이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우승 이정자(94타·-1)·니어리스트상 전은희씨가 각각 랭크됐다. 제139차 월례회는 오는 6월2일 같은 장소에서 5팀이 기량을 겨룬다. 이날 대회에서는 월례회 우승자('04년 5월~'05년 4



월)가 격전하는 왕중왕전을 함께 펼친다.

바둑 4월우승 배주원 "파봉!"

바둑 모임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지난 4월2일 오후 1시30분 한일기원에서 8명(이유환 배주원 신현주 김진석 이종수 이창근 전영배 강성태-도착순)이 정례대국을 벌였다. 우승은 배주원·준우승은 이창근·감투상은 이종수 동문이 차지했다. 5월 대국은 쉬었고 6월 대국은 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갑고 또 반갑네"

재경 경연회 5월수업도 '수'

경연회(재경10회·회장 차동렬) 각 친목회는 반장(회장)들의 독전이 떠나나 최근 수년간 매월 치르는 수업에서 '수'를 받아 칭찬 속에 물었다. 이 같은 저력에 힘입어 올해 5월 수업도 '수'가 예상된다.

가족 동반 봄나들이 의논

안산회(회장 박철민)는 10일 오후 12시30분 산본역 앞의 순

두부마을에서, 강북회(회장 강재환)는 3일 같은 시간에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각각 만나 가족 동반 봄나들이에 대해 뜻을 나눴다.

등산 모임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7일 관악산에 올라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철쭉꽃에 심취했고 오는 22일에는 도봉산에 오르기로 했다.

등수회, 춘계회장매대회

테니스 모임 정우회(회장 최

형백)는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관문테니스장에서 기량을 겨뤘고, 골프모임 경록회(회장 이정배)는 26일 정오부터 자유CC에서, 바둑 모임 동수회(회장 김상태)는 28일 오전 11시부터 회장 사무실에서 춘계 회장배대회를 각각 열었다.

골프 4월우승 이창배 차지

한편 경록회 4월대회에서는 우승 이정배·메달리스트 김연수·준우승 신광식·3위 조상진·롱기스트 이승락·니어리스트 김창덕·행운상 정갑환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순두부 등 신토불이 애용

분당회(회장 정상수)는 오는 21일 오후 6시 수내역 근처에 있는 낙지홍에서, 강남회(회장 김해룡)는 24일 오후 12시30분 서초기왓집순두부에서, 일금회(회장 최장훈)는 27일 오후 6시 일산 주엽역 인근 마라도에서 각각 만나 정례회를 열었다.

그리움에, 기다림에 ...서울에서 피은 봄편지

봄이 한창 피고 있다. 우정은 그리움에 가슴 저린다. 이곳 동거회, 저곳 직능회 등에서 봄맞이 마음들을 붉게 물든 철쭉꽃보다 더 진한 빛깔로 전하고 있다. 다음 글들은 서울에서 강바람에 띄워 보낸 봄편지들이다.

<편집자>

“들꽃 생명력에 삶의 환희 절감하시요”

어지간히도 멈춰버리던 봄이 이젠 무르익고 있습니다. 겨우내 빛을 잃었던 나뭇잎새들은 하루가 다르게 밝은 빛을 더해 갑니다. 이처럼 계절의 봄은 어김 없고 영원한 것이지만 사람의 봄은 유한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와 늙은이가 맞은 봄이 마음속에 드리우는 빛은 다르기 마련이지만 올해따라 봄은 더 새롭고 경건해집니다.

이 봄 꽃들의 화사한 경엽(競艷)보다 겨우내 발길에 채이면 서도 글글이 살아 남아 새싹을 피우 들꽃에 정이 자꾸 갑니다. 집요하고 끈덕진 생명력에서 삶의 의지와 환희를 확인해 서인지 모르겠군요.

다시금 자연에의 경외심으로 한없이 선택되고 싶은 소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재경 경팔회>

“철순이라니? 한창 약동하는 청춘이라오”

‘봄을 믿는 자보다는 봄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보다 봄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팔산우회 회원들은 모두 시인입니다. 봄을 노래할 줄 아는 시인입니다.

서울 근교의 산에 오르니 개나리 진달래가 한창 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소월의 ‘진달래 꽃’을 노래하고 이상화의 ‘백아진 돌’에도 봄은 오는가’도 노래했지요.

그때 우리는 노시인이 아닙니다. 온몸에 힘이 넘치는 생기가 약동하는 청년입니다. 새봄을 맞아 우리 모두 청년이 된 기쁨으로 산행을 계속합시다. <경팔 산우회>

“우정은 꽃생추위도 날려버렸어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6년 만이지만 꽃생추위치고는 지나칠 정도로 춥고 번덕스런 날씨가네요. 꽃샘이 아니라 골프샘이었던 모양입니다.

덕달 만에 함께 점심을 먹는데, 눈보라가 몰려 왔다가 금세 햇볕이 맹맹하더군요. 라운딩 중에도 강한 바람과 눈발이 날려 바람막이를 몇 번이나 입었다 벗었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 18홀을 모두 거뜬히 돌며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280야드의 장타를 날리는가 하면, 80년 초반의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몇 년 만에 새로 출전한 신광식 조상진 동문은 임회기념품과 함께 큰 박수를 받았고, 지난해 아홉 번의 월례회에 한 번도 안 빠진 김연수 동문도 이근래 이민섭 동문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12명이 오붓하게 회식을 즐겼는데, 지난해 라운딩을 마감하는 11월 월례회에서 우승한 차동철 동문이 상품대로 금일봉을 협찬하여 박수를 받았지요.

<경열회 정록회>

제27회 동거회 국토문화탐사대 대원들이 해미읍성 안에서 '역사'의 숨결'을 아로새기고 있다.



쌍석회 새 회장 이명 선임 바둑 우승 이상훈·한영규

제11회동거회 바둑모임인 쌍석회는 지난 4월15일 오후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봄철친선바둑대회에 이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대수 쌍석회 회장이 주재한 바둑대회는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1~6시 열전을 치른 끝에 A조에서는 우승 이상훈·준우승 김학수, B조에서는 우승 한영규·준우승 최득호 동문이 각각 차지해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대회를 마친 뒤 바로 열린 정

기총회에서는 이명(중국 심양 조선족교육사업후원회 회장) 직전동거회장을 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집행부 구성권한을 위임받은 이 선임회장은 오완수(본부 부회장·대한제강 회장)·김학수 동문(전 부산대 교수)을 고문으로 제안했고 총괄부회장에 한영규, 이사에 강문상 김원형 박병조 박장순 신대수 안종인 이상명 이상훈 정운표 최득호를 지명하였다.

한편 밤 10시30분까지 열린 단합회는 이날 대회에 나오지 못한 안종인 동문이 보낸 특찬금 20만원을 종자돈으로 해서 폭탄주가 들려지는 등 열기충천의 한마당이었다.

제21회 신입회장 이재호 선임



제21회동거회는 지난 4월15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석화한정식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어 신입회장에 이재호 동문(변호사·사진)을 선임했다.

강수경 수석부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사회-권오균 총무).

이재호 신입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명감을 갖고 조직활성화와 동문 상호 유대 강화에 앞장겠다”고 말했다.

심며 사랑하며

“해미읍성 잔디밭 육개장은 특기”

제27회 두 번째 국토문화탐사기 이 민 부

지난 4월16일 아름다운 서해안의 충남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주변 공세리의 유서 깊은 성당 느티나무~유적~가적운하~신두리 시구~천수만~간월도-간월암 등에서 펼쳐진 제27회동거회 제2차 국토문화탐사는 신선한 감동을 연출한 체험이었다.

재경경산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김건국 회장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33명(김민기 부부 등 13쌍·김 회장 등 싱글 7명)이 참가. 이민부 동문의 알뜰살뜰한 가이드로 견문을 넓혔고 끈끈한 정을 켜켜이 쌓는 전기가 되었다.

회창한 날씨. 출발시간 20분 전인 7시 40분경부터 동문들이 각각 부인을 모시거나(?), 또는 홀몸으로 모여든다.

7시45분경, 박스를 든 한 ‘아저씨’가 나타나서 “나 누군 줄 알겠나?” 한다. 자세히 보니 10년은 젊어진 듯한 이윤근이

을 가진다. 달리는 차 안에서 이윤근 동문이 준비한 150컬레의 양말들이 둘러지고 잡담이 무성해질 무렵 금방이다 싶게 공세리에 도착한다.

아름다운 성당과 역사를 지켜보고 신느티나무, 그리고 유적들을 돌아본 후 ‘열애다방’의 ‘오봉’은 오늘도 달린다. 농담이 질어지다가 해미읍성 안의 잔디밭에 발길을 멈춘다. 둘러앉아 열린 육개장과 이구찜으로 소줏잔을 기울인다. 육개장과 이구찜이 ‘죽여준다’.

맛있는 오찬 후 해미읍성의 성벽을 한 바퀴 돌고, 가적운하~신두리 시구~천수만~간월도와 간월암을 탐사한 후 양재에서 발품을 멈춘다(18:30). 김건국 회장과 이준용 총무는 이구동성으로 “지금까지 술하게 다녀 봤지만 이처럼 완벽하게 시간표대로 도착한 것은 처음”이라며 어깨를 으쓱거리다.

출발할 때 정철길 동문이 SK 주유권(5만원권) 4장과 상품권(10만원권) 1장을 특찬해 이날 행사에서 ‘빠마디가’ 수시도록 애쓰는 동문에게 ‘봉사상’으로 수여기로 했다.

운하 등 해양문화체험 협찬 상품권 경매에 붙여

상품권은 국토문화기행 공식가이드 이민부 동문이 차지했다.

그러나 주유권은 “예산이 초과되어 특별기금을 조성한다”는 김건국 회장의 제안에 따라 버스 안에서 경매에 붙여졌다. 3장은 김민기 김동조 이홍재 동문이 각각 6만원씩에, 나머지 1장은 치열한 경합 끝에 이길학 동문이 10만원에 낙찰을 받는 행운(?)을 누렸다. 이로써 단번에 28만원의 특별기금이 조성되었다.

예약한 음식점 방을 독차지하고 삼겹살을 안주로 한없이 소줏잔을 나누고 있는데, 마라톤 연습을 끝낸 이홍길 김성수 동문이 합류, 술잔은 마구 춤을 추었다.

김중철 동문은 예고했던 대로 ‘발리노니’ 주스를 음식점까지 가져와 한 사람마다 2병들이 1박스씩(16만원짜리)을 특찬한다. 부부 경우 2박스를 차지해 무려 32만원어치를 황재해 시중 싱글방글이다.

김동조(10만원) 최병원(5만원) 이광호(5만원) 동문의 막판선심 덕분으로 예산이 넘쳐 남는 돈으로 뒤풀이를 속행한다. 귀가길은 신바람 속에서 출렁거렸다.

다. 멋지게 웨이브진 머리칼 덕분에 물리칠 정도다. 뒤풀이 때 “어린 친구가 ‘맞먹을래?’ 하는 으름장들에 놀려 “말 올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이라고 내뱉는 바람에 배꼽을 잡게 했다.

7시50분경, 또 한 아저씨가 여러 개의 가방을 메고 끄끙거리며 나타난다. 낮익은 빨간 색 ‘종가집김치’ 냉동백을 보고 모두들 환호성을 터뜨린다. 전 풍 동문(두산식품BG 대표이사)이 이번에도 김치를 무려 23박스나 협찬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정철길 동문 부부를 마지막으로 태운 관광버스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린다. 김건국 회장의 인사와 일정 안내에 이어 이민부 동문의 역사가 한 권씩 안겨진다.

집행부가 준비한 꿀떡들과 음료수로 간단히 요기한 후 기흥휴게소에 잠시 둘러 남겨 할 것 없이 ‘개별정비’ 시간

클릭!! 클릭!!

본부동창회 홈페이지는 용마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동창사회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kyungnam.or.kr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하십시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글마을’에의 초대



용마가족 여러분을 회보의 집필자로 모십니다. 시·수필·여행관광기·취미생활수기·학창시절 추억담·시평·제안 등 뜻이든 자료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보낼 곳>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글든O/T 411호
TEL : (051)245-7551~3 FAX : (051)245-7550

대망의 러셀산행 성공에 "만세"

구덕산우회 제10차 지리탐구기 **김영출** (28회)

#1 - 무대와 등장 인물

자칭 지리산도사가 우글거리는 구덕산우회가 러셀산행을 끝내 성취했다. 지난 1월 22~23일 구덕산우회는 제10차 지리탐구로 새재(조개골산장)~치발목산장(1박)~하봉안부(헬기장)~하봉~쑥밭재~새재(비둘기산장)에서 저력을 과시했다.

참가자는 하영수(17회) 오기현 최장하(이상 20회) 오기목(23회) 안형수(24회) 태기섭(27회) 김보상 김영출 박진주 김준연 서영대 이종태(이상 28회) 한효용(30회) 남기태 원종철(이상 31회) 양철웅 동문(34회)과 특별초청 김영문 박경배씨 등 모두 18명.

'어머니 지리산'의 깊은 산내음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행복하다.

산할 때 물어보기로 하고 새로 올라간다.

조개골산장에 도착하니 서울팀이 먼저 와 있다. 화산방과 중철방사와 인사를 나누는 후 헤드램프를 켜고 치발목을 향해 발품을 판다(18:20).

캄캄한 밤의 눈길과 빙판길을 아이젠도 착용하지 않고 선두에 서서 올라가려니 겁이 난다.

40여 분 올라가다 1차 휴식을 하고 다시 강행군이다. 헤드램프의 불빛 사이로 싸락눈이 내린다. 마음속으로 '합박눈이 되어 무릎까지 쌓이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욕심을 부려본다.

땀에 흠뻑 젖은 채 무재치기폭포 못미처 조그만 공터에서 두 번째로 쉰다. 각자 간식을 꺼내 먹는다.

잠시 후 '출발 3분 전!' 을 외치고 다

00:12). 서둘러 취사장에 들어서니 벌써 오 선배와 중태 주방장이 버너를 피우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선배는 뒤쪽 샐터에서 똑똑 떨어지는 석간수를 한 말들이 통에다 벌써 받아 놓았다.

취사장 벽에 걸린 전광판의 현재기온은 -4.2°C이다. 밖은 -10°C이하일 텐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인지 포근한 느낌이다. 떡국으로 아침식사를 한 후 산장 앞 공터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는다. 밤새 내린 눈으로 길이 없어졌고 무릎까지 빠진다. 김준연 남기태 두 동문을 러셀조로 뽑아 하봉쪽으로 출발시킨다(08:20).

눈 속으로 빠지면서 문득 구덕산우회의 정체성을 생각한다. 말로리의 등로주의와 라인홀스 메스너의 '존재의 등반' 쪽으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부지런히 발품을 판다.

쌓인 눈 속으로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서 숨을 고르다가 김준연표 꽃감을 간식으로 하나씩 얻어먹는다. 한효용 원종철 동문을 러셀조로 교대시켜 하봉 안부에 도착한다(10:30). 평소 1시간 남짓 걸리는 시간이 배로 길어졌다.

우리는 헬기장 공터에서 뜨거운 코코아 한 잔씩을 마시고 설화와 상고대를 배경으로 포즈를 잡는다. 잠시 후 하봉쪽으로 출발한다. 오 선배 왈 "이 구간이 지리산에서 제일 눈이 많이 오는 구간" 이란다. 러셀조의 노력으로 하봉에 오른 후 릿지를 타고 국골과 새재 걸림길에 닿는다(12:00). 가쁜 호흡을 차가운 수통물로 식히고 있으니 후미조가 도착한다. 다시 출발, 쑥밭재 조금 못미처 능선의 날직한 곳에서 4, 4, 5, 5명씩 조를 맞춰 떡라면으로 점심을 먹는다(13:00).

오늘의 날씨는 이상적이다. 일맞은 적설량과 기온으로 모두 만족해 한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점심과 휴식을 끝내고 새재쪽으로 출발한다(14:00).

가파른 산죽밭과 눈덮인 너덜지대를 지난다. 눈 덮인 바위 틈에 발이 몇 번 빠지고 산죽밭에서 미끌어지다가(14:40) 조개골과 합류하는 곳에 도착한다. 조개골 왼쪽 너머 황금능선기보다 큰 산죽밭에 얽힌 사연('마지막 공비' 정순덕 이야기, 김준연 아들의 산죽밭 고생 이야기 등)를 들으면서 하산한다.

같은 곳이어도 얼음판 위에 눈이 덮여 있어 몇 번씩 넘어진다(그러나 모두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는다). 쉬지 않고 골장 새재에 도착한다(15:40). 성공적 러셀산행에 증지부를 찍는 순간이다. 조개골산장에서 맥주로 목을 축인 다음 목욕(덕산탕)~저녁식사(혹매지 삼겹살로 유명한 두꺼비식당)~해단식을 치르고 귀가길에 오른다.

"졸업 앨범 좀 빌려주세요"

제1~14 · 17 · 22 · 23 · 25 · 54 · 56 · 57 · 59회 대상

경남중 홈페이지 구축 위해 요청

모교 경남중(교장 김철곤 · 16회)에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졸업생들의 졸업앨범을 구축하기 위해 이를 당분간 빌려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모교에서 전자화시킨 후 바로 돌려주려고 하는 졸업앨범은 제1~14회, 17 · 22 · 23 · 25 · 54 · 56 · 57 · 59회 등 모두 22개 동기회 분이다.

이 같은 졸업앨범은 본부동창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교60년사> 편찬에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만큼 이를 소장하고 있는 동문들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경남중은 올해 역점사업의 하나로 학교 홈페이지에 개교부터



지난 2월 졸업한 제62회까지 동기회별 앨범을 구축해, 재학생들에게는 '학교역사'를 바로 알려 애교심을 고취시키고, 졸업생들에게는 소중한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다.

"푸른 5월은 우리들 세상이에요"

등대회 어린이날 맞아 가족 위안 잔치

등대회(부산지역 해운 항만 수산업 등 관련 동문 친목회)는 지난 5월5일 경남 양산 시내 해운자연농원에서 어린이날 기념 동문·가족 단합회를 열었다. 김경재 회장(19회 · 세영선박공

업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풍선터뜨리기 · 자녀대항 릴레이 · 부부삼각달리기 · 어린이기마전 · 자녀동요대회 · 족구 등 가족 위안 잔치로 배풀어졌다.



3월22일 열린 등대회 정기월례회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수첩 제작 등 주요의제를 의결했다.

회원수첩 새로 제작키로 정기월례회에서 확정

한편 등대회는 앞서 지난 3월22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뷔페파크에서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김경재 회장이 주재한 월례회

는 회원수첩 제작과 5월5일 용마가족단합대회 등 주요안건을 의결, 이의 준비를 집행부에 위임했다. 안경환(19회 · 신항만공사 사장) · 추준석(20회 · 부산항만공사 사장) · 송정규(25회 · 부산항도선사업회 회장) · 이인수 동문(28회 · 부산해양수산청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제10차 지리탐구에 나선 구덕산우회 동문들이 러셀산행을 성공시킨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는 안전행이 생명인 운전자와 같은 등반대장의 행운을 누렸다. 이번 코스는 비교적 짧은 구간이지만 인적이 드물고 적설량이 많아 러셀산행을 잔뜩 기대하고 있다. 만약 기대 밖일 땐 발품을 조금 더 팔아 쓰리봉~중봉~하봉으로 경로를 바꿀 생각이다.

#2 - 첫째날 (1/22)

우리는 이날 오후 3시15분경 부산진역 앞에서 오기목 선배가 운전하는 승합차로 출발한다. 차 안에서 오기현 선배가 작년에 부부가 백두대간을 중주했다는 하영수 선배를 소개해준다.

'애마'는 남해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휴게소에 들러 아간산행에 대비해 오기를 한 일행들 태우고 다시 달린다. 단번에 대원사 계곡의 매표소다. 입장료를 내리는데 여직원이 생긋 웃으면서 그냥 통과하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나"며 무임통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 하

시 배낭을 추스린다. 무재치기폭포 옆 나무계단을 힘겹게 올라선다. 눈발이 굵어진다. 멀리 치발목산장의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은은히 들린다. 조금 더 올라가니 아련히 불빛이 비친다.

산장 앞 공터에 올라(20:40) 심호흡을 한 후 치발목산장의 문을 열고 들어선다. 먼저 온 대어섯 명의 산꾼들이 저녁을 먹고 있다. 조금 있으니 회원들이 모두 올라온다.

방을 정한 후 취사장에서 저녁을 준비한다. 버너를 피워 서영대 동문이 삼겹살을 구원한다. 이를 안주삼아 하 선배와 화산방이 특찬한 양주를 알파인 스타일로 한 잔씩 돌린다. 밖에는 눈이 쌓이고 안에는 우정이 꽃핀다. 이 무렵 인천팀(4명)이 들이닥쳐(00:10) 시골벽적 해진다.

#3 - 둘째날 (1/23)

"기상!" 하는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제1회

權五賢 = 본부 고문. 4월24일 부인 별세. 영락공원에 안장

제7회

朴斗滿 = 동기회장. 4월17일 별세. 영락공원에 안장

제8회

金榮吉 = (자택 이사)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6 솔거 대림아파트 723동 1104호. 031-398-4662
李永昌 = 4월7일 모친 별세. 거창선영에 안장

제9회

金綜鎬 = 4월16일 하모니 웨딩타운 심포니홀에서 삼남 영용군

결혼

徐豪成 = 4월28일 지병으로 별세. 석계공원묘지에 안장
車震漢 = 5월21일 육군사관학교 화랑회관에서 장남 병수군 결혼

제10회

金桂淳 = 4월17일 범일동 상록회관에서 아들 결혼
金時烈 = 6월11일 은행연합회관(명동성당 앞)에서 차남 상연군 결혼
金容元 = 4월30일 해운대 스펀지웨딩홀에서 차남 결혼
文昌海 = 4월16일 해운대 조선히에서 딸 결혼
朴鐘文 = (자택 이사)부산시 남구 대연6동 1272-2 동원로얄듀크 203동 1006호. 051-646-1882
裴基大 = (자택 이사)부산시 수

어디서 무엇을

영구 광안2동 광안맨션 329호. 051-611-3788
襄孝龍 = (자택 이사)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975 아침마을 자유로 I PARK아파트 111동 1305호. 031-947-9249
李珉燮 = 5월12일 서울창충동 동국대학교 예술극장에서 조부인 국은 이한웅 열사 추모 행사 개최
李昌福 = 5월4일 LG강남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차남 승철군 결혼
尹才謨 = (주)월드인슈넛(법인). (사무실 이전) 서울시 중구 충

무로4가 148-1 기종빌딩 805호. 02-2267-4211 · (FAX)02-2267-4046 · 011-342-4728

제11회

金重河 = 부산대학교 교수. 2월25일 정년 퇴임. 3월20일 대동병원에서 모친 별세. 051-512-6174 · 011-9502-6174
金平得 = (연락처 변경)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1500-6 물운대아파트 103동 711호. 051-263-5713 · 010-7305-5713
李正培 = 4월3일 괴정병원에서 사망. 051-204-2871
玄正春 = 동기회장 · 초당서화연구실장. 4월2일 롯데호텔 2층 사파이어홀에서 차녀 은아양 결혼. 051-622-0426 · 011-9531-3536

제13회

孔漢局 = 4월7일 별세
崔 熾 = 민주평통자문회의 진해시 추천 위원장 취임.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 자문위원 위촉

제14회

金勇侯 = 4월9일 오후1시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 12층 리더스클럽에서 장남 대진군 결혼
金重秀 = 3월20일 모친 별세. 경북 봉화군 선영에 안장
林宜秀 = 명강사 대표. 3월25일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 밀양 천성산에 안장
崔炳完 = 4월7일 용산전경기념관 웨딩홀에서 차남 호철군 결혼
<7면에 계속>

모교 개교 제63주년 기념식

경남고, 도서관·물리실 개관식도 함께 거행

모교 제63주년 개교기념행사가 지난 4월 29일 경남고와 경남중 별로 거행됐다.

경남고는 이날 오전 11시 학교 체육관에서 권명미 교장 주재로 기념식을 거행했고, 이어 체육관 리모델링공사·원형관·과학관 화장실 개수공사·신관-본관 옥상 방수 공사 준공식과 도서관·물리실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직원과 재학생을 비롯해 안강태 본부 회장(11회·대전조선 대표이사), 허홍욱(19회·부산대 사범대 교수) 학교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등

1,300여 명이 참석, 자축했다.

학교 상징 캐릭터 그리기 경남중, 부대행사로 펼쳐

경남중도 이날 같은 시간에 김철곤 교장(16회) 주재로 학교 운동장에서 교직원·재학생·학교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3회 개교기념식을 거행했다.

이어 부대행사로 애교심 함양을 위해 '학교를 상징하는 캐릭터 그리기' 대회를 열었다.



학교 체육관에서 거행된 경남고 개교 제63주년 기념식.



경남고 '덕형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한 안강태 본부회장이 권명미 교장과 허홍욱(19회) 학교운영위원장(오른쪽 세 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과 함께 개관기념 테이프를 끊고 있다.

도서관 등 구축 관계자 안강태 본부회장, 노고치하

한편 안강태 본부 회장 등은 경남고 도서관·물리실 개관식 테이프를 끊고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도서관 경우 덕형관(원형교사) 2층 전체 5개 교실을 리모델링해 ▷모듬학습실(전자칠판 설치) ▷일반열람실 ▷교수학습실 등으로 구성하고 빔 프로젝트와 자료

검색 컴퓨터 6대 등을 설치, 최신 도서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했다(장서는 단행본만 6,173권).

그리고 도서관과 함께 문을 연 물리실 경우 ▷자료보관장·의자·바닥보 전면 교체 ▷빔 프로젝트·전자칠판 설치 ▷자료검색 컴퓨터 6대·전기·방송시설 구축으로 학생들의 실습·실험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6면에서 받음>

제15회

- 金 熹=(연락처 변경)010-2290-5121
- 申二述=(주택 이사)경남 양산시 신기동 119-11 리치빌라 A동 501호, 055-365-8603
- 劉仁基=도서관 푸른물결 대표, 3월17일 부산 동기회관 장서용으로 <광희보감> 10권 기증
- 李宗秀=2월23일 경남전문대학교 교수직 퇴임(34년 봉직), 4월1일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KFHI) 봉사단원으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봉사활동 중
- 林相澤=(연락처 변경)010-2441-5768
- 鄭剛弘=3월13일 부친 노환으로 별세, 남해 노량 선산에 안장
- 鄭守邦=4월23일 오후 2시 서울대 총동창회관 웨딩홀 5층 차녀 원주양 결혼
- 鄭昌煥=4월3일 모친 노환으로 별세, 의령 선영에 안장
- 金三用=(주택 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605동 704호, 031-605-6308
- 金雙烈=4월30일 서울 군인공제회관 밀레니엄홀에서 차남 결혼
- 成漢杓=2월18일 SBS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출
- 李光珍=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을 사임하고 (주)삼희엔터프라이즈 회장에 취임, 02-549-8405
- 李必彥=4월8~14일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한국중견작가 초대전에 작품 전시, 4월4~10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국제회화교류전에 참가
- 鄭吉秀=3월19일 서울 엘지타워에서 장남 결혼
- 洪然友=3월8일 모친 별세

제16회

- 孔明圭=4월2일 모친 별세
- 金成秀=(주택 이사)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46-1 프리우스아파트 404호
- 金振輝=(주택 이사)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120, 02-2699-1911
- 金判圭=(주택 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2 분당풍림아이원 A-302호, 031-719-6889
- 夫俸珍=3월6일 폐암으로 별세
- 薛熙淳=(주택 이사)서울시 강남



- 구 대치동 670 동부센트레빌 101동 903호
- 이중성=3월25일 부인 타계
- 李漢鐘=(주택 이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583-59 명지빌라 301호, 031-976-1780
- 車光元=(주택 이사)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270 삼익아파트 6동 604호, 02-429-1424

제18회

- 金永大=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로얄베스트피아 101동 1107호, 051-759-0600
- 金永秀=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황금빌라 101호, 051-754-2535
- 金鐘文=신생건축설계사 대표, 051-809-6969
- 盧星河=은혜혼수이불 대표, 051-254-2226
- 盧星鉉=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6-34, 051-512-2853
- 馬鐘準=명신사료 대표, 052-264-8951
- 朴建泰=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대창아파트 106동 1704호, 051-741-5958
- 朴大雄=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611-73, 051-805-2911
- 朴碩道=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낙천대아파트 109동 603호, 051-361-7360
- 朴星溶=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한양아파트 52동 906호, 051-751-7531
- 朴成義=부산시 북구 화명동 1416-4, 051-332-0467
- 朴榮一=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건영1차아파트 310동 402호, 051-701-5641
- 藪成國=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대우마리나아파트 110동 201호, 051-743-5192
- 成時濟=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한신아파트 105동 202호, 051-501-7430
- 宋裕峰=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동부아파트 105동 1302호, 051-701-9816
- 송한승=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한신아파트 101동 1002호, 051-816-7881
- 梁玎滿=미라보관광호텔 대표, 051-866-7400

- 李成一=(주)삼보산업 부회장, 011-9503-5530
- 李在一=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SK아파트 103동 1002호, 051-932-9321
- 李興洙=동양오리온투자신탁증권 이사, 051-808-8301
- 林永燮=고향정보리밥뷔페 대표, 051-263-7200
- 張淵植=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75-4, 051-758-0390
- 鄭容浩=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대림1차아파트 108동 303호, 051-702-7706
- 鄭正燾=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대림아파트 505동 2301호, 051-701-3621
- 崔翔惠=청천화원 대표, 051-647-6167
- 崔成浩=(주)대한화학상사 대표, 051-645-3367
- 崔元一=고려철강상사 대표, 051-317-1800
- 秋昌根=세븐일레븐 편의점 대표, 051-806-6852
- 洪宇在=새마을금고(학장동지점) 이사장, 051-322-6543

제19회

김경재=등대회 회장·세영선박공업(주) 대표이사, 4월24일 부산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룸에서 장녀 영아양 결혼

제20회

- 金照東=김조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 4월23일 서면 롯데호텔에서 딸 민희양 결혼, 051-515-7230
- 盧基太=국제신문사 사장, 3월25일 정기총회에서 2005년 동기회장 선임, 051-500-5001
- 宋根浩=3월21일 부친 별세, 011-9236-3267
- 秋俊錫=부산항만공사 사장, 1월 25일 부친 별세

제21회

- 權五均=(주)한국에어로테크 부산지사장, 3월15일 본부동창회총무협의회(慶總會) 제4대 회장 선임, 051-441-2179·010-3193-4080
- 權容孝=기장군청 재난관리과장, 051-709-4630·017-856-8803
- 金裕健=Total trading co. 대표, (사무실 이전)부산 중구 중앙동 KAL빌딩 뒤 동일빌딩 402호, 051-464-7645·016-551-7645

제21회

- 梁秉曹=관세사, 3월30일 오양관세사무소 개업, 051-988-8921·019-692-9551
- 劉正煥=3월8일 모친 별세, 051-469-5126
- 尹景泰=대화무역(주) 대표이사, 051-463-9978·011-866-0352
- 李在皓=이재호법률사무소 변호사, 4월15일 동기회장 선임, 051-506-7381·011-595-6242
- 全琪煥=해성병원(반송) 원장, (연락처 변경) 011-864-2891
- 崔金鳩=광신무역(주) 대표이사, 051-246-2541·017-574-2444
- 崔民錫=(주)유원산업 회장, 055-223-3559·011-591-0844

제25회

宋晶珪=2월18일 부산항도선사협회 회장 유임.

제2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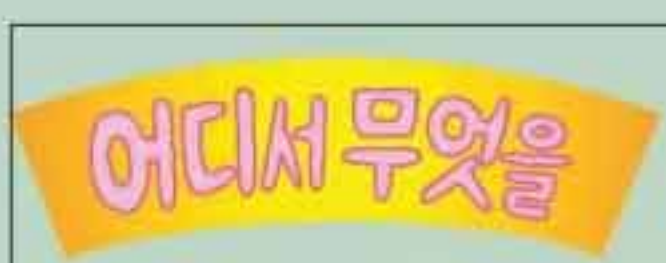
金秀敏=대구고검 차장검사

제27회

文奎湘=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安鐘澤=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8회

金俊淵=4월10일 부산소년원 의무과장, 051-515-7389·010-9919-4529
玉俊原=부산고등검찰청 검사
李春盛=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鄭英周=정영주안과의원, (이전 개업)경남 창원시 대방동 364-1 대방상가 엑스몰빌딩 204호



- (롯데리아 2층), 055-283-0277·(FAX)055-283-0270
- 鄭允賢=창대종합물류(주) 대표이사, (사무실 이전)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96-2 금호빌딩 6층, 051-466-1900·(FAX)051-466-1977
- 申孝徹=(주)지엔지, (사무실 개업)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68-3 2층, 031-611-1991·010-2255-7258
- 韓鍾佑=4월4일 국립 경상대학 병원장에 취임

제29회

趙漢旭=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재운=4월 25일 부산은행 대신동지점장으로 발령, 051-248-6503·019-541-4007

제30회

- 金馬三=강남태양열(주) 부산경남지사 개업, 051-506-6462·016-554-8464
- 金鐘振=삼한정공(주), (공장이전)부산 사상구 학장동 752-15, 051-324-6380·011-9515-6380
- 金和坤=국민은행 부산기업금융지점장, 051-250-1640
- 朴鐘守=부산일보 논설위원
- 朴贊植=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인 최초로 명예 역사학박사 학위 취득, 011-345-6010
- 卞萬祚=4월13일 별세, 울산대학 병원에 장기 기증

李相弼=부산광역시 학부모회 총연합회 회장 당선, 011-1755-0330
蔡泳緯=한화그룹 상무이사보 영진
崔昌勳=3월18일 별세
洪寅基=자바나이트클럽(옛 국도극장 지하) 개업, 010-4464-0625

제34회

金清鉉=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타 기관 파견)
魯東表=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제37회

金正洙=태평목재 이사, 부산시 사하구 장림1동 967-1, 051-263-9660·011-9251-2724
丁海昌=정해창세무회계사무소, 부산시 서구 토성동 1-4번지, 051-245-0135·011-1736-0227



지난 4월 17일 도농 우리은행 구장에서 열린 재경동창회 주최 제37회 회장기 정발 기별대회 야구대회 입장식. 천신일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재경 제37회 기별야구대회 개막

제19~21 · 23 · 24 · 34 · 41 · 44회 각각 첫승 올려

재경동창회는 지난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도농 우리은행 구장에서 제37회 기별야구대회 입장식을 거행했다. 천신일 회장(15회·세종 회장)이 주재한 이날 입장식에는 25개

팀 선수·응원단을 비롯해 정동식 명예회장(1회)과 한준석(3회) 김경희(9회) 이규만(12회) 이상택 고문(13회), 올해 처음 임명된 구본능 대회운영위원장(21회)과 김영록 동문(12회) 등이 참석했다(사회 : 박

호문 사무국장-15회). 이날 행사는 천 회장 대회사와 정 명예회장 격려사, 구 대회운영위원장 인사와 최극림 대회 간사의 대회규정 발표, 선수대표 선서(정규영·36회)와 교가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대회는 지난 3월 27일 대회 첫 경기를 시작으로, 개막식 후 5게임 등 모두 6게임을 치렀다. 경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9회(패)-제19~21회(승)
△제23회(승)-제36회(패)=14-13
△제24회(승)-제30회(패)=4회
콜드게임승 19-3)△제37회(패)-제41회(승)-4:21)△제34회(승)-제48+제9회 연합(패)=시간제한으로 △21-17△제40회(패)-제44회(승)=6-16

일오산우회 대마도 원정등반

부부동반 21명 1박2일... 시라다케산 등 올라

일오산우회(제15회 부산 동문 등반 모임) 동문·가족들이 일본 대마도의 아리아케산과 시라다케산 등반에 성공. 정상에서 "후라, 경고!"를 외치며 쾌거를 자축했다.

지난 3월 19~20일 김항영 회장이 통괄한 1박2일 일정의 일본 대마도 원정산행은 동문 15명과 부인 6명(강무상 강재모 김항영 최수자 김훈 손부홍 신홍규 윤정애 오세창 이동근 이영자 이승남 김초자 이영정 최 선 일상택 임영길 정



준수 박정덕 최 옥 한해수)이 참가했다. 19일 오전 10시 배를 타고 부산항을 떠난 일행은 오후 1시 대마도에 내려 먼저 시라다케산(정상 이 흰 바위로 덮여 있어 붙여진

이름)을 등정했다. 이 산은 옛날 수행자들이 대마도의 영산이라며, 도를 닦던 곳이었다. 뒷날 20일 새벽 5시 30분 원정단

일본 대마도의 시라다케산과 아리아케산을 등정한 후 시내 관광에 나선 일오산우회 동문가족들이 가이드(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은 아리아케산 등반길에 올라 정상에 밟았다. 하산 후 시내 관광을 하고 오후 2시 30분 선편으로 부산에 도착했다.



재경 14-K 당구회 회원들이 창립 1주년 기념 친선당구대회를 연 후 자축연에서 우정을 나누고 있다.

재경 14-K 당구회 창립 1주년

15명 기량 겨뤄 우승 진선대

제14회동기회 부산-서울 각 클럽별 활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재경 14-K 당구회는 지난 3월 19일 재즈당구장에서 창립 1주년 기념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15명이 참석, 기

량을 겨뤄 우승은 진선대·준우승은 조정현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이어 결산보고와 기념파티를 가졌다.

부산 올해 첫시합... 우승 씬이경

14-K 부산 골프회는 3월 9일 통도사 CC에서 올해 첫 시합을 가졌다. 이날 서울에서 신기석 동문이 참석, 모임활성화 방안

등을 나눴다. 구자신 등 12명(부인 2명 포함)이 겨룬 시합에서 우승 성이경·메달리스트 박효진·준우승 권희정(박병선 동문 부인)·행운상 김용호 동문이 차지했다.

제229차 등반 백양산에서 일오산우회, 가족 동반으로

제15회 일오산우회는 지난 4월 17일 어린이대공원~백양산 코스의 제229차 산행을 실시했다.

김항영 회장이 총괄하고 강무상 동문이 산행대장을 맡은 이날 산행에는 모두 20명(부인 포함)이 참가했다.

특히 김정일 동기회장이 만찬장(초음동 품미갈비집)에 참석, 강무상 산행대장과 함께 금일봉을 험찬했다.

축시

친구여! 한 잔

-제19회 졸업 40돌 홈커밍축회에 부쳐

이수진
제13회·시인

우리는 짝 차 있다.

40년 전에도
만원버스에서 살냄새와 함께

열아홉 나이를 지나 세순으로 짝 찼다.

구덕산 가슴까지
숨 차 솔라도
세전엔 미처 몰랐다.

아께
내가 너를 바라보며
달려온 세월 되돌아보며
숨막히던 질주 늦추면서
탐욕의 주름살 문지르면서
청수리까지 짝 찬 햇웃음을!

오늘
우리는 땀가를 위해 촉매를 든다

친구여!
귀를 순하게 하자

파도소리 설레이지 않겠지?
어네의 부름에 소늘은 놀라지 마라
머칠 낮밤을 지새울 수 없겠지만
순도 높은 휴식의 밤에 젓자

식어가는 가슴에 장작불 지퍼놓고
허로코로 안타까운 삶 대위해보자

서슬을 끌고 북채를 잡아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춤이라도
한껏 추어보자

새로운 이름표라도 가슴에 꽂고
초록냄새 뚝뚝 떨어지는 숲으로 가자

친구여!
한 잔.

식어가는 가슴에 장작불 지퍼놓고 세상 위한 춤을...

제 12회 동기회 집행부 명단

상임고문

강수현 권영상 김부환 김철기
김광일 권 익 문정수 박보국
안영규 왕한균 이용연 남기용

회 장 김준철

부 회장

장동석 정호중 김종성 김성찬
김중수 김성식 김준광 김용호
김선일 김제욱 김우성 김철중
엄태섭 정영철 전판재 박종정

이춘상 하일기 하일민 홍용하
탁혜정 최명진 천구성

이 사

김두식 김석용 김용관 김인한
김현찬 김효구 박문기 박미원
박용운 박호민 백창식 서태상
안상직 안영배 오세정 오수봉
우청하 유영철 이석립 이수영
이원우 이종석 이태진 이환철
임정명 장상근 정영복 정동식
정의철 정현대 주광조 최신일
추영재 허은도 강종신 광삼덕

배기원 박시상 이무엽 이정광
이현달 정진태 공 문 김장욱
김종원 박정운 옥계환 장승재
최병훈 강창수 김종일 김익도
최병준 조병탁

감 사 정대식

총 무 단

부회장겸총무 : 김성찬
재 무 총 무 : 유병용
운 영 총 무 : 임창완
운 영 실 장 : 김상희

지 역 회

재경동기회

회장 : 안용득 총무 최경균
울산·경주 동기회
회장 : 최병준 총무 김익도
대구·포항동기회
회장 : 김종원

경남 동기회

회장 : 김장욱

중구·서구·영도구·동구 동기회

회장 : 김우성 총무 강창수

남구·연제구·진구 동기회
회장 : 김제욱 총무 최명진
서하구·강서구·서상구 동기회
회장 : 김춘광 총무 박용운
해운대구·수영구 동기회
회장 : 길철중 총무 우청하
동래구·금정구·기장군 동기회
회장 : 김부환 총무 이춘상

<동기회 사무실>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7-6(402호)
☎(051)627-1958